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UPDATE

| 지역연구 |
2015년 2월 5일 Vol. 15 No. 4
ISSN 1976-0515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對)산둥성 수출 및 투자 변화와 시사점

• 김부용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044-414-1282)

• 최지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wchoi@kiep.go.kr, Tel: 044-414-12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차 례

1.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서 산둥성의 위상 약화
2.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의 변화와 원인
3.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의 변화와 원인
4. 시사점

주요 내용

▶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투자는 짧은 회복세 이후 다시 둔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음.

-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 증가율은 2011년부터 다시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있으며,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역시 2012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음(2011년 21% → 2012년 14.4% → 2013년 5.6%).

▶ 이러한 변화는 산둥성의 수입선 및 무역방식의 전환, 경영환경의 변화, 내륙지역의 부상 등에 따른 결과임.

-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이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고, 내수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최종재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은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산둥성 진출 한국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의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다수 한국기업들이 원가경쟁력을 상실함.
- 중국기업들이 원가경쟁력과 함께 빠른 기술추격으로 기술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협력업체를 중국 업체로 대체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됨.
-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따라 내륙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가 산둥성을 비롯한 연해지역에서 샨시성, 쓰촨성 등의 내륙지역으로 확산해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임.

▶ 향후 우리의 대산둥성 수출과 투자는 현지 내수시장과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 등을 목표로 가속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수출에 있어서는 현지 내수를 위한 일반무역, 특히 산둥성의 일반무역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의 경쟁우위 품목이기도 한 식료품, 화학제품 등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에 있어서도 저임 활용에서 현지시장 진출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여 지속적인 임금상승에 대응해야 함.
- 산둥성의 산업 고도화에 맞춰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과 IT, 신약, 해양개발 등 신흥산업에서 수출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함.
-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였던 산둥성에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관계가 약화되고 있어, 품질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함.

1.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서 산둥성의 위상 약화

■ 산둥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외개방을 실시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리적 접근성, 기후 및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한·중 수교 이전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으며, 현재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인접한 중국이 개혁과 더불어 시장개방을 하면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급격히 이전하게 됨.
- 그중에서도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기후도 매우 유사하며, 유교의 고장으로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산둥성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외개방을 실시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우선 진출 지역이 됨.
-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가 시작된 1988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93억 달러로 산둥성은 한국의 대중 투자 2위 지역이며, 한국은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위 국가임.
  - 1988~2013년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에서 중소기업의 투자가 49.6%, 대기업의 투자가 42.8%를 차지함.
- 산둥성에 진출한 임가공 수출 위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본국으로부터 기계류와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도 증가하여 한국은 줄곧 산둥성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산둥성은 광둥성, 장쑤성과 더불어 3위권에 드는 중요한 지역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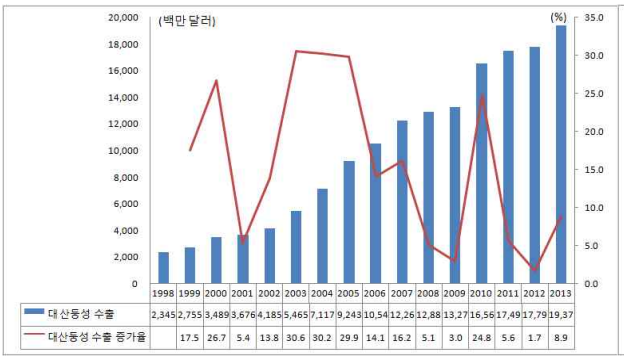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산둥성은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 전체 대중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2008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2010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산둥성의 비중도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임.
  - 산둥성에 대한 투자는 2012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대중 투자대비 비중 또한 2011년의 21%에서 2012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5.6%로 크게 축소되었음.
- 이에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과 투자의 변화 실태 파악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산둥성 수출 및 투자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의 변화와 원인

■ 산둥성은 한국의 대중 수출 3대 지역으로 중요한 수출대상지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둔화세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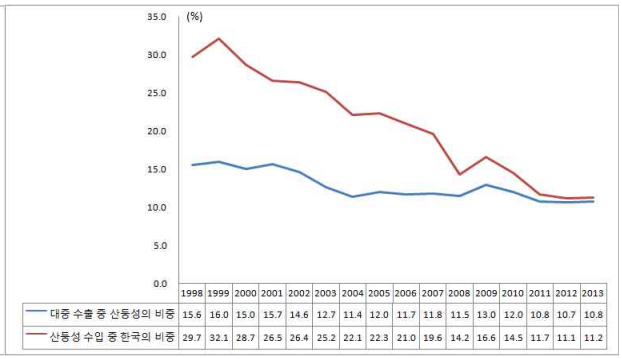
- 2013년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액은 194억 달러로 대중 수출(1,794억 달러)의 10.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둥성(436억 달러, 24.3%)과 장쑤성(425억 달러, 23.7%)에 이어 3위임.
  - 또한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산둥성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2013년 산둥성의 대(對)한국 수입은 전체 수입(1,730억 달러)의 11.2%를 차지함.
- 한편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떨어졌음(기저효과를 보인 2010년 제외).
  -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둥성의 전체 수입대비 한국의 비중은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지만 2011년부터 1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임.

그림 1.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4. 11. 11).

그림 2.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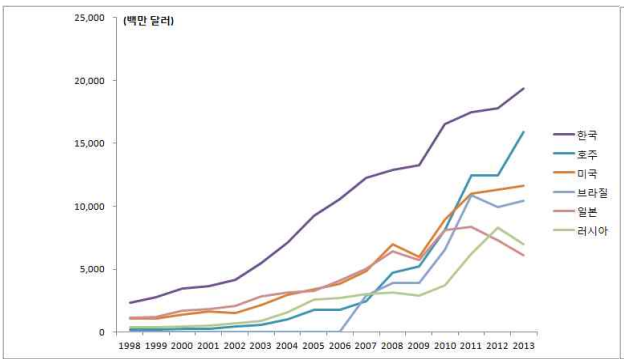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4. 11. 11).

■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 둔화가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것은 산둥성 수입자체의 둔화와 수입선의 전환, 무역방식의 전환 등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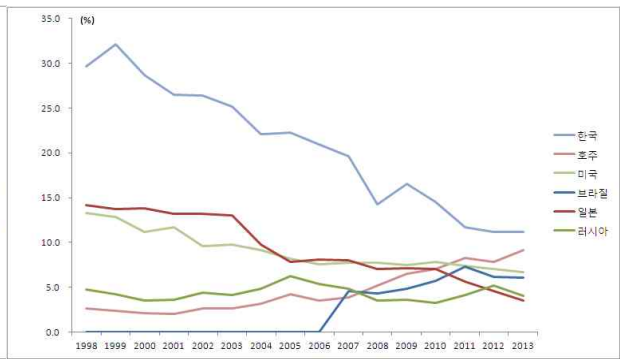
- 산둥성의 수입은 2010년과 2011년에 기저효과로 인해 다시 30~4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2년부터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2012년 6.8% → 2013년 8.4% → 2014년 2.1%).
- 산둥성의 국가별 수입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호주와 브라질이 약진하면서 산둥성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산둥성이 원자재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그림 3. 산둥성의 국가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5. 1. 29).

그림 4. 산둥성 수입의 국가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5. 1. 29).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의 수입에서 일반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은 여전히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무역에 치우쳐 있고 일반무역의 비중은 작음.

○ 2009~12년간 산둥성의 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서 46.5%로 약 8%포인트 상승하였으나,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에서 28.6%로 큰 변화가 없음.

■ 이 밖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대산둥성 수출 둔화에 영향을 미침.

- 금융위기 이후 6년(2008~13년)의 누적 수출액과 금융위기 이전 6년(2002~07년)의 누적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부분 내륙지역임.

표 1.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대중 지역별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성·시·자치구	2002~07년 누적 수출		2008~13년 누적 수출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전체	404,644	100.0	859,924	100.0	112.5
장쑤성	98,335	24.3	221,868	25.8	125.6
광둥성	93,252	23.0	200,675	23.3	115.2
산둥성	48,819	12.1	97,377	11.3	99.5
상하이시	45,094	11.1	85,762	10.0	90.2
톈진시	35,333	8.7	72,963	8.5	106.5
베이징시	22,607	5.6	51,926	6.0	129.7
저장성	23,137	5.7	41,482	4.8	79.3
랴오닝성	12,777	3.2	21,856	2.5	71.0
푸젠성	12,449	3.1	18,533	2.2	48.9
허난성	376	0.1	11,469	1.3	**2,950.4**
쓰촨성	1,391	0.3	8,767	1.0	**530.1**
허베이성	2,227	0.6	5,878	0.7	163.9
안후이성	1,639	0.4	4,517	0.5	175.6
후베이성	1,023	0.3	2,730	0.3	167.0
충칭시	340	0.1	3,208	0.4	**843.9**
후난성	1,392	0.3	1,166	0.1	-16.2
지린성	932	0.2	1,552	0.2	66.4
산시성	274	0.1	2,172	0.3	**692.8**
장시성	483	0.1	1,641	0.2	239.5
헤이룽장성	1,091	0.3	576	0.1	-47.3
광시자치구	577	0.1	968	0.1	67.8
산시성	269	0.1	1,057	0.1	292.7
하이난성	172	0.0	568	0.1	231.4
네이멍구자치구	128	0.0	455	0.1	256.7
신장자치구	137	0.0	235	0.0	71.1
윈난성	105	0.0	236	0.0	124.1
구이저우성	187	0.0	56	0.0	-70.0
간쑤성	72	0.0	82	0.0	14.9
닝샤자치구	11	0.0	84	0.0	**636.8**
칭하이성	10	0.0	61	0.0	**526.7**
티벳자치구	3	0.0	2	0.0	-46.8

주: 1) 지역 순서는 1998~2013년 한국의 대중 누적 수출액 순위에 따른 것임.
2) 증감률은 2002~07년 누적 수출액 대비 2008~13년 누적 수출액의 증감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4. 11. 11).

○ 특히 허난성, 쓰촨성, 충칭시, 샨시성 등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이 500% 이상 대폭 증가함.

- 이는 중국의 내수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내륙지역의 수요가 확대되고, 연해지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내륙지역으로 일부 이전한 것 등과 관련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섬유제품이나 가죽제품과 같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고 전기기기, 광학·의료·정밀기기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베이커리 제품, 음료 등 소비재의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음(부표 1 참고).

-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HS 85)은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금융위기 이후 31%로 비중이 증가함.
- 광학·의료·정밀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HS 90)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으로, 금융위기 전 3.4%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12.5%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순위도 8위에서 2위로 상승함.
- 반면 편물(HS 60), 원피와 가죽(HS 41) 등은 금융위기 전에는 수출 상위 10위권 품목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줄어들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 이러한 변화는 노동비용 상승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임.
  ○ 2010년부터 산둥성의 최저임금 기준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며, 2009~14년 기간 연평균 인상속도는 14.6%에 달함.[1)]
  ○ 산둥성은 12차 5개년 규획에서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한편, 전략적 신흥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2)]
- 또한 내수가 확대되며 최근 몇 년간 베이커리 제품, 음료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의 변화와 원인

■ 산둥성은 한국의 대중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회복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산둥성 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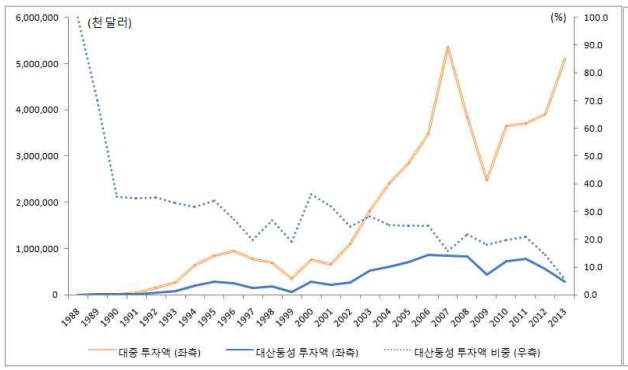
- 1988~2013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누적 투자법인 수는 7,741개(한국의 대중 투자법인의 33.1%)로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에서 1위이며, 누적 투자액은 93억 달러(전체의 20.2%)로 장쑤(江苏)성(102억 달러, 21.9%)에 이어 2위임.[3)]
- 1988년 이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지역별 대중 투자에서 산둥성은

1) 같은 기간 연해지역 중에서는 톈진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4%로 가장 높고 산둥성이 두 번째로 높음.
2) 山东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1),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keri.koreaexim.go.kr, 검색일: 2014. 11. 6).

2003년까지 매년 1위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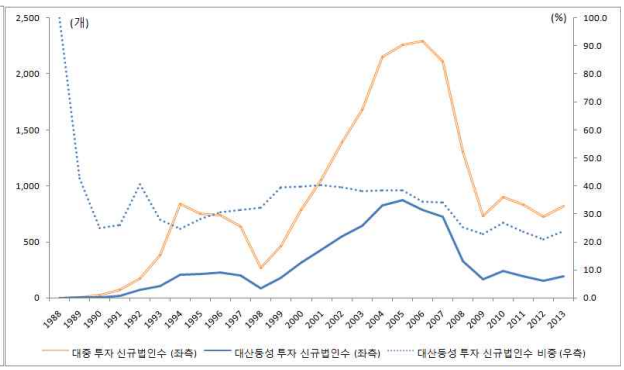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가 장쑤성, 광둥성 등 기타 연해지역에 집중되면서 대산둥성 투자와 대중 투자와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대산둥성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8억 7천만 달러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전체 대중 투자는 회복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산둥성 투자는 잠깐의 회복기를 거친 후 2012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대중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체 대중 투자대비 산둥성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1년의 21%에서 2012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5.6%로 급격히 하락함.
- 한편 신규 투자법인 수의 경우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건당 투자액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신규법인 기준으로 건당 투자액은 2011년 최고치인 39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45만 달러에 이름.

그림 5.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액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그림 6.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신규법인 수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복·액세서리, 가방·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산둥성 소재 한국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원가 면에서 비교우위의 약화로 인해 공장 철수 등 투자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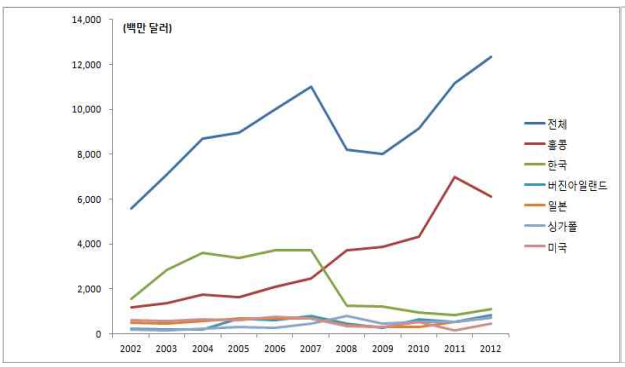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는 급감한 뒤 회복이 되지 않은 반면, 홍콩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했으며, 이로 인해 산둥성 FDI는 회복되고 있으나 한국의 투자 비중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산둥성은 홍콩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도시화, 신흥산업 등 분야에서 홍콩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관광, 운항 등 분야의 홍콩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신에너지, 바이오, 소프트웨어, 해양산업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음.[4)]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은 한국, 홍콩, 일본 등 주요국 외에도 스페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4) 中国日报山东记者站(http://www.chinadaily.com.cn/dfpd/2011-05/09/content_12467653.htm, 검색일: 2015. 2. 2), 「香港在山东投资项目超过15500家」.

국가로부터 투자를 새롭게 유치하는 등 투자선을 다변화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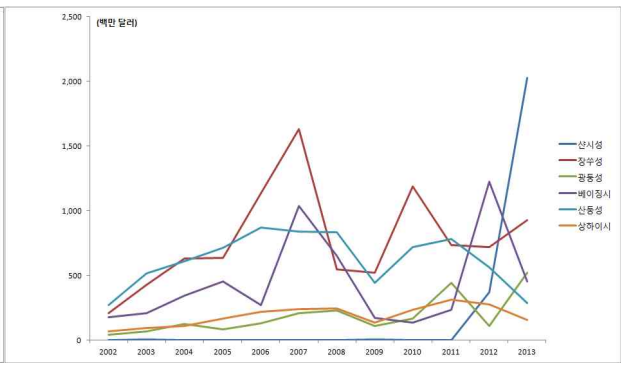
- 반면 최근 5년간 산둥성 소재 한국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원가 면에서 비교우위의 약화로 매년 500개씩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의복·액세서리, 가방·신발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두드러짐.[5)]
  - ○ 산둥성 소재 한국기업 수는 전성기에 1만 개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국기업들이 최근의 빠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투자를 철수함에 따라 2014년 11월 기준 4,800개로 줄어듦.
  - ○ 철수한 기업들은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데, 2012년 산둥성 칭다오 소재 14개의 주얼리 기업들이 전북 익산으로 유턴한 것이 대표적임.
- 이 밖에 중국정부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내수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수출가공기지로 산둥성을 비롯한 연해지역에 투자를 집중했던 한국기업들이 차츰 중국을 시장으로 보고 샨시성, 쓰촨성 등 내륙지역으로 투자를 확산해가고 있는 것도 대산둥성 투자가 줄어든 원인임.

그림 7. 산둥성의 FDI 추이



자료: 연도별 산둥통계연감.

그림 8. 한국의 중국 주요 지역에 대한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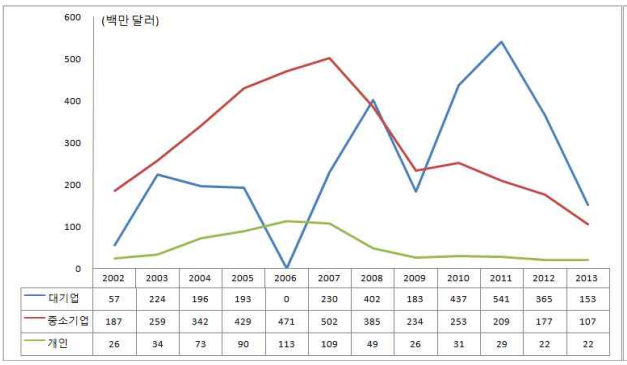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감소는 투자 주체별로 보면 주로 대기업의 투자가 크게 하락한 결과임.

- 투자 주체별로 대산둥성 투자 특징을 분석해 보면 2007년까지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기업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 대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며 중소기업의 투자를 상회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투자는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대산둥성 투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기업의 대산둥성 투자는 2012년부터 크게 줄어들며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추이와 같은 추세를 보임.
- 한편 신규 투자법인 수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줄어들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음.

5) 财经网(http://money.163.com/14/1117/21/AB9JLHOB00253B0H.html, 검색일: 2014. 11. 17), 「韩企纷纷撤离中国 山东每年平均减少500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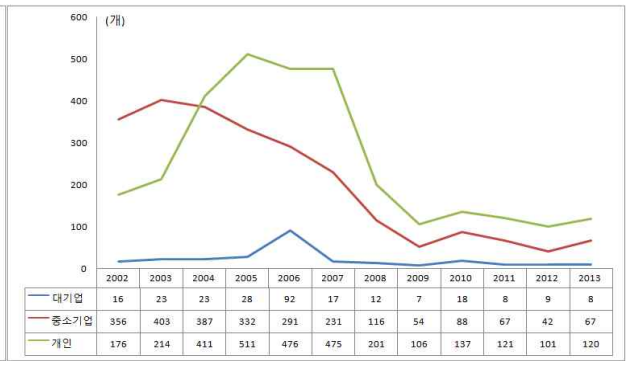
그림 9. 투자 주체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액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57	224	196	193	0	230	402	183	437	541	365	153
중소기업	187	259	342	429	471	502	385	234	253	209	177	107
개인	26	34	73	90	113	109	49	26	31	29	22	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그림 10. 투자 주체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신규법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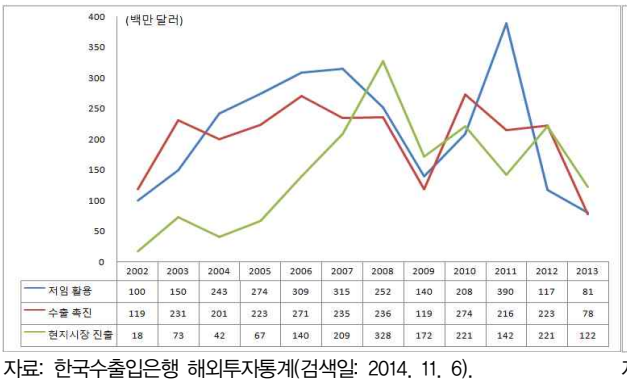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16	23	23	28	92	17	12	7	18	8	9	8
중소기업	356	403	387	332	291	231	116	54	88	67	42	67
개인	176	214	411	511	476	475	201	106	137	121	101	1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 투자 목적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산둥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 감소는 주로 저임 활용 목적의 대산둥성 투자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임.

- 그동안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저임 활용 목적의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빠르게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출 촉진이나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수준을 하회하기에 이름.
- 신규법인의 경우 저임 활용과 수출 촉진 목적의 투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주된 투자 목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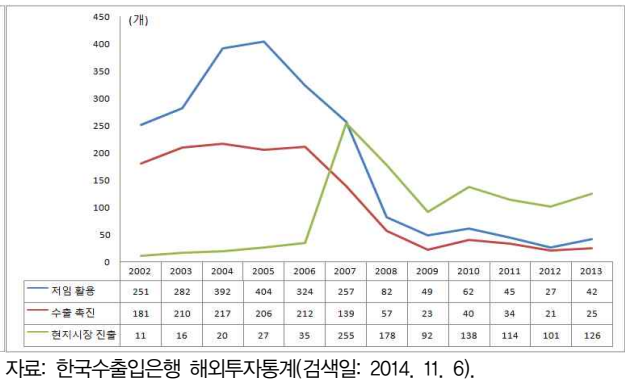
그림 11. 목적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액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저임 활용	100	150	243	274	309	315	252	140	208	390	117	81
수출 촉진	119	231	201	223	271	235	236	119	274	216	223	78
현지시장 진출	18	73	42	67	140	209	328	172	221	142	221	1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그림 12. 목적별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신규법인 수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저임 활용	251	282	392	404	324	257	82	49	62	45	27	42
수출 촉진	181	210	217	206	212	139	57	23	40	34	21	25
현지시장 진출	11	16	20	27	35	255	178	92	138	114	101	1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하락이 최근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하락을 주도함.

-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80~90%투자규모는 2012년부터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009년에 크게 하락한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고무·플라스틱 제품, 가방·신발, 의복·액세서리 등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부표 2 참고).
  -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 1위 분야이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순위도 상승함.

○ 이에 반해 고무·플라스틱 제품, 가방·신발, 의복·액세서리 등 제조업은 투자가 감소하고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의복의 경우 3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 서비스업에서는 스포츠·오락, 부동산, 요식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도·소매업과 창고·운송, 수상운송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부표 3 참고).

○ 금융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으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함.

4. 시사점

■ 산둥성은 우리의 대중 경협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나 금융위기 이후 수출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투자의 경우 전체 대중 투자의 회복세와는 달리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산둥성의 수입선 및 무역 방식의 전환, 투자선 다변화와 경영환경의 변화, 내륙지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

-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이 원자재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호주, 브라질 등 자원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공산품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산둥성이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지 내수를 위한 일반무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산둥성 수출은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공무역에 치우쳐 있음.
- 투자의 경우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의복·액세서리, 가방·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임가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금융위기 이후 산둥성의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6] 원가경쟁력을 상실한 한국기업들이 속속 투자를 철수하게 됨.
- 게다가 중국기업들이 원가경쟁력과 함께 빠른 기술추격으로 기술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협력업체를 중국 업체로 대체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킴.
- 이 밖에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따라 내륙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가 산둥성을 비롯한 연해지역에서 샨시성, 쓰촨성 등의 내륙지역으로 확산해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임.

■ 향후 우리의 대산둥성 수출과 투자는 현지 내수시장 및 자본·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 등을 목표로 가속화해야 함.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둥성도 내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거대 인구[7]를 바탕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수출에 있어 가공무역보다는 현지 내수를 위한 일반무역의 비중을 높여야 함.

○ 특히 산둥성의 일반무역 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우위 품목이기도 한 식료품(5.8%), 화학제품(5.8%), 기타 기계 및 장비(5.3%) 등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8]

6) 2009~14년 기간 연해지역 중 톈진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4%로 가장 높고 산둥성이 14.6%로 두 번째로 높았음.
7) 산둥성의 인구는 9,700만 명으로 중국에서 광둥성(1억 600만 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음(2013년 기준).
8) 양평섭 외(2013),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연구보고서 13-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투자에 있어서도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저임활용에서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임금상승에 대응해야 함.
- 또한 산둥성의 산업 고도화에 맞춰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업종에서 수출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산둥성은 향후 △금융·보험 △물류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의료·보건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더불어 △신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정보 △신약 △해양개발 등의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2013년의 당대회 보고에서는 향후 5년간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해마다 1%포인트 제고할 계획을 밝힘.

■ 이 밖에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우선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일부 공정의 아웃소싱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임.
-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KIEP

부표 1.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대산둥성 주요 수출품목 비중 변화

(단위: %)

품목 코드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2~07		2008~13	
														비중	순위	비중	순위
85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18.9	20.9	23.8	25.2	24.2	29.5	33.4	31.7	29.3	25.2	32.2	34.5	24.8	1	31.0	1
90	광학·의료·정밀기기 및 그 부분품	0.7	0.8	1.6	3.4	5.1	4.8	4.6	11.4	13.4	14.7	15.3	13.3	3.4	8	12.5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2.3	13.0	12.5	10.4	10.4	10.9	12.4	11.0	14.1	14.1	10.5	9.6	11.3	3	11.9	3
27	광물성연료 및 이들의 증류물	1.1	4.0	4.8	5.1	8.0	11.1	8.4	8.6	9.6	12.3	10.8	10.1	6.7	4	10.1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5	9.7	11.4	11.9	12.5	11.8	11.7	10.3	9.2	8.9	8.1	8.3	11.5	2	9.3	5
72	철강	5.2	5.9	6.7	7.8	6.5	4.1	4.8	5.8	4.1	4.0	3.4	2.8	6.0	5	4.0	6
40	고무 및 그 제품	1.0	1.2	1.1	1.4	1.8	2.1	1.9	1.7	2.1	2.7	2.5	2.1	1.6	16	2.2	7
74	동 및 그 제품	0.9	0.9	1.3	1.4	2.1	2.1	2.2	1.6	2.0	2.0	1.9	2.5	1.6	14	2.1	8
29	유기화학품	4.0	4.1	3.9	2.8	1.7	2.0	1.4	1.9	2.0	2.6	1.5	1.8	2.8	9	1.9	9
87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0.2	1.1	1.1	3.3	2.6	1.8	1.2	0.8	0.9	0.7	2.0	3.9	1.9	11	1.7	10
73	철강제품	1.3	1.5	1.5	1.5	1.6	1.8	2.2	1.8	1.4	1.4	1.4	1.4	1.6	15	1.5	11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5.6	5.7	4.8	3.6	3.0	2.4	2.1	2.1	1.6	1.3	1.2	0.9	3.7	6	1.5	12
41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8.9	5.6	4.4	2.9	2.5	2.0	1.5	1.2	1.0	0.9	0.8	0.9	3.6	7	1.0	13
59	방직용 섬유직물 및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3.9	2.5	1.8	1.5	1.3	1.1	1.1	1.0	0.8	0.7	0.6	0.5	1.7	13	0.7	14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5	0.6	0.8	1.0	0.5	0.8	0.9	0.6	0.7	1.0	0.5	0.7	0.7	23	0.7	15
32	유연·염색엑스탄닌과 그 유도체	1.1	1.0	1.1	0.9	0.9	0.7	0.8	0.8	0.8	0.7	0.5	0.4	0.9	19	0.6	16
54	인조장섬유	4.5	3.8	2.4	1.9	1.3	1.0	0.9	0.7	0.6	0.6	0.6	0.5	2.1	10	0.6	17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0.8	0.8	0.9	1.0	1.0	0.6	0.6	0.6	0.6	0.5	0.6	0.6	0.9	20	0.6	18
55	인조단섬유	4.5	3.4	2.3	1.6	1.1	0.9	0.7	0.6	0.5	0.4	0.3	0.3	1.9	12	0.5	19
82	비금속제의 공구 및 이들의 부분품	0.1	0.2	0.2	0.2	0.5	0.3	0.3	0.3	0.4	0.4	0.4	0.4	0.3	31	0.4	20
…	…	…	…	…	…	…	…	…	…	…	…	…	…	…	…	…	…
19	곡물조제품, 베이커리제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0.3	0.0	64	0.1	38
22	음료, 알코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61	0.1	49
21	각종 조제식료품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59	0.1	50

주: 상기 품목은 2008~13년 누적 수출액 상위 20위 품목 및 규모는 작지만 금융위기 이후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품목들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4. 11. 11).

부표 2.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대산둥성 제조업 투자의 세부업종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2002~07년			2008~13년			증감률
	투자액	비중	순위	투자액	비중	순위	
제조업 전체	3,361	100.0		3,215	100.0		−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74	17.1	1	673	20.9	1	1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1	7.5	6	541	16.8	2	115.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7	7.7	4	414	12.9	3	60.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63	7.8	2	258	8.0	4	−2.0
식료품 제조업	217	6.4	8	248	7.7	5	14.5
기타 제품 제조업	155	4.6	10	198	6.1	6	27.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2	7.5	5	167	5.2	7	−33.9
1차 금속 제조업	218	6.5	7	134	4.2	8	−38.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5	2.5	15	101	3.1	9	17.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0	5.1	9	97	3.0	10	−42.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	4.5	11	91	2.8	11	−39.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2	7.8	3	78	2.4	12	−7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3	3.7	13	73	2.3	13	−40.5
전기장비 제조업	98	2.9	14	51	1.6	14	−47.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4	4.3	12	41	1.3	15	−7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8	2.3	16	33	1.0	16	−58.6
가구 제조업	24	0.7	17	5	0.1	17	−79.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	0.4	18	4	0.1	18	−74.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4	0.4	19	4	0.1	19	−74.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0.0	22	2	0.1	20	115.9
음료 제조업	2	0.1	21	2	0.1	21	4.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0.2	20	1	0.0	22	−78.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0	23	1	0.0	23	31.5

주: 증감률은 2002~07년 누적 투자 대비 2008~13년 누적 투자의 증감률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

부표 3.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대산둥성 서비스업 투자의 세부업종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2002~07년			2008~13년			증감률
	투자액	비중	순위	투자액	비중	순위	
서비스업 전체	345	100.0		367	100.0		6.2
도매 및 상품중개업	38	11.0	5	105	28.6	1	176.9
소매업; 자동차 제외	52	15.1	2	81	22.2	2	55.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	1.7	11	44	11.9	3	633.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4	18.5	1	40	10.8	4	-37.9
부동산업	48	13.8	4	24	6.4	5	-50.7
수리업	3	1.0	15	9	2.4	6	167.2
보험 및 연금업	0	0.0	28	8	2.1	7	-
수상 운송업	0	0.0	27	8	2.1	8	10,256.1
음식점 및 주점업	14	4.0	8	7	2.0	9	-47.2
숙박업	14	4.2	6	7	1.9	10	-51.2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1.3	13	6	1.7	11	38.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0.8	17	5	1.2	12	58.9
전문 서비스업	2	0.7	19	3	0.8	13	34.4
교육 서비스업	3	0.8	18	3	0.8	14	-3.0
임대업; 부동산 제외	14	4.1	7	3	0.7	15	-80.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	2.0	9	3	0.7	16	-59.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2	22	3	0.7	17	359.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	0.0	28	2	0.7	18	-
연구개발업	0	0.0	28	2	0.4	19	-
사업지원 서비스업	3	0.8	16	2	0.4	20	-47.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	0.0	26	1	0.4	21	1,247.0
출판업	7	1.9	10	1	0.3	22	-8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	0.3	21	1	0.2	23	-29.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0.0	25	1	0.2	24	356.2
통신업	0	0.1	24	0	0.1	25	2.4
금융업	49	14.3	3	0	0.1	26	-99.5
방송업	0	0.0	28	0	0.0	27	-
정보 서비스업	0	0.1	23	0	0.0	28	-7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0	28	0	0.0	29	-
항공 운송업	2	0.5	20	0	0.0	30	-100.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	0.0	28	0	0.0	31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	1.4	12	0	0.0	32	-100.0
보건업	4	1.3	14	0	0.0	33	-100.0

주: 증감률은 2002~07년 누적 투자 대비 2008~13년 누적 투자의 증감률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11. 6).